신뇨엔, 열반절 맞아 열반회 법회 봉행

동경 응현원 법회 생중계에 동참
〈대반열반경〉 가르침, 정진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단법인 신뇨엔 부산정사가 2월 15일 부산정사에서 열반회 법회를 봉행했다.

재단법인 신뇨엔 부산정사(상임이사 정경)가 2월 15일 부산정사에서 열반회 법회를 봉행했다. 열반회는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정진을 당부하며 법문한 후 입적에 든 '열반절'을 기리는 신뇨엔 법회이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정진하는 종단으로 개조 이토신죠(1906~1989)가 설립했으며 신뇨는 진여(眞如)를 의미한다.

열반회 법회는 일본 동경 다치카와시 신뇨엔 종합도량 응현원에서 봉행하는 법회의 생중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법회는 원주 게이슈사마의 설법을 통해 〈열반경〉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열반회 법회는 부산정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신뇨엔 불자들이 동시 접속해 열기를 더했다.

먼저 법회는 터키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대반열반경〉 순타품에 대한 설법과 부처님의 열반을 그림으로 담은 '열반도(涅槃圖)'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열반도는 일본 진언종 사찰 제호사에서 수여 받은 것으로, 부처님의 열반 당시 모습이 담겨있다. 열반도에는 부처님의 제자와 중생을 비롯해 동물, 신들과 마왕까지 참석해 석가의 열반을 한탄하고 마지막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원주 게이슈사마는 열반도에서 순타존자를 찾아 설명하며 "순타는 부처님이 입멸할 당시 15명의 도반들과 함께 달려와 마지막 공양을 올렸다. 이때 부처님은 순타의 공양만을 받으셨다"며 "개조 교슈사마는 청년 재가자인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보며 재가자의 수행과 구제의 길을 찾아냈고 가르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법호지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순타이다. 포교와 실천수행, 환희, 봉사로 마음과 행동을 장엄하자"고 당부했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설립된 재가불교 종단이다. 개조 이토신죠는 진언종으로 출가해 진언 밀교 수행을 이어왔다. 이후 경전을 연구하던 중에 〈대반열반경〉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수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경문을 발견해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재가자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신뇨엔을 설립한 이토 신조는 신뇨엔에 봉안된 열반존상을 직접 근각하고 세계 각처에 있는 신뇨엔 도량에 동일한 열반존상을 봉안했다. 열반존상은 부처님 입멸 당시 모습이 아닌 청년 부처님의 얼굴을 담아 완성해 〈대반열반경〉에서 설하는 영원성을 상징으로 담았다. 매년 신뇨엔은 열반회에서 〈대반열반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과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부산시 난개발 반대 성명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존 요청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2월 10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낙동강 하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습지로 길이 보존해야 할 필요성 인정되어 1960년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며 "그동안 난개발로 숱한 훼손이 있었음에도 워낙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어 지금도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 습지로 기능하는 곳이다. 그러나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교량과 경관을 해치는 고층 빌딩들을 보며 난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저대교 · 엄궁대교 · 장낙대교 건설계획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제2에코델타시티 건설과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는 중단되어야한다. 이는 부산시가 야기하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도 모순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산시와 정부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와 낙동강 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등의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또 "한국 대표 갯벌,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촉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자비원, 헌혈 캠페인 진행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이 2월 8일 자비원 시설 일대에서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혈액 수급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민에게 헌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양로시설원장 선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홍성표 자비원 사무총장, 최경옥 국장 등 임직원이 동참했다.

홍성표 자비원 사무총장은 "이번 헌혈 캠페인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은 1991년 노천당 월하 대종사가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 최초로 설립한 노인복지전문기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추모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월 16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13주기 추모회'를 봉행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추모의식을 매년 봉행하고 있다.

추모회에는 성주사 조실 흥교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한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스님, 교무국장 본원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수관 회장과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회는 예불과 헌화, 법정 스님 생전 가르침을 담은 추모영상,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흥교 대종사는 "법정 스님은 효봉 스님의 제자였고 정성을 다해 시봉을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법정 스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을 울렸고 부산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청한 인연도 있었다. 오늘 추모회를 맞아 가르침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불일암을 방문했을 때 청아하고 맑은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때 느낀 법정 스님의 청아한 기운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모임의 중심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관 회장님께 감사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박수관 회장은 "혼탁하고 어두운 소식이 들려올 때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그립다"며 "이런 시대에 스님께서 한 말씀 화두처럼 던져주시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주셨을 텐데,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신 것 같아 그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주시고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법랍 55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1976년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 등 30여 권의 책을 펴낸 수필가로도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혜단이슬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가 2월 11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선혜단이슬합창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널리 전하고 있다. 포교를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전국에서 일어난 어린이합창단의 시작점으로 문화포교에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이다.

정기공연에서 선혜단이슬합창단은 불교를 주제로 한 찬불가 '나모아바로기떼서바라', '부처님이 좋아요', '부처님오신날' 등을 소개했으며, 자유곡 '달팽이의 하루', '네잎클로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였다. 아울러 무진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진선재 '해금중급반'과 '기타초급반'이 찬조 출연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다. 특별무대에는 부산로열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윌리암 텔 서곡(William Tell-Overture)과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 주제곡 등을 연주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부산로열유스오케스트라에는 선혜단이슬합창단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인연이 됐으며 특히 강소영 학생은 악장을 담당하고 있다.

행사에는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과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동련 이사 능후 스님, 선혜단이슬합창단 지도법사 도진 스님을 비롯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과 학부모가 참석해 격려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오늘 아름답고 순수한 천진불들의 화음을 불보살이 찬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며 "부처님 법음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들이 바라는 희망 가득한 세상이 불국토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선혜단이슬합창단은 2016년 7월 3일 창단했다. 이후 2017년 창단발표회를 시작으로 찬불동요의 중요성을 알렸다. (051)294-93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팔관재계 수계법회 봉행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원순)이 2월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전계화상 원순 스님, 교수아사리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갈마아사리 해인사 前 율원장 혜능 스님이 담당했으며 개식, 거향찬, 청성과 청성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불자들은 참회진언을 외며 연비를 받았고 청정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에 앞서 동명불원은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이 사찰에서 생활하고 강의 및 백팔참회, 기도 등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계에 담긴 의미를 전달했다.

원장 원순 스님은 "팔관재계는 부처님이 재가 불자를 위해 수행 생활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신 계법"이라며 "계는 모든 선의 근본이며 악을 소멸하는 근원이다. 수행은 계로 시작한다"고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천문학 강좌

사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편법 사주명리, 육임 등등은 불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따라서 불교 경전에 설파된 각종 천문관련 방편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평생운세, 매년운세, 단시판단법, 택일법, 기도성취법 등을 국내,외 최초로 스님, 법사님에게만 한정 '제6기 불교천문학 강좌'를 안내합니다.

불교천문학 특징

- 불교의 기본 핵심, 원리을 명확하게 알수 있음.
-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게 됨.
- 만사, 인사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됨.
- 방편법으로 모든 동양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됨.

모집요강

- 개 강 : 3월 12일(일) 15시
- 교육 과정 : 주 1회 2시간씩 약 1년 과정
- 교육 장소 : 수원시 소재 수도사
- 교육 비용 : 약간 보시금
- 접수 문의 : 010-4317-9500(심원)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림사
- 주 지 : 수민(임정선)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52번길 37
- 전 화 : 010-7133-841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알립니다.

2023년 2년 10일

한국불교원효종 법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